



교회소식 & 이웃소식

함께여는교회

- 함께여는교회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시 30분
- 함께 가는 공동체
뉴스앤조이,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서한국, 하나누리, 희년함께,
개척자들, 촛불 교회, 좋은 의자,
그리스 이슬람 난민 선교
- 교회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36가길 97(B1층)
- 교회 전화번호
02) 743-4113
- 교회 홈페이지
www.opentogether.org
- 교회 은행계좌
국민은행 089501-04-184175

섬기는 분들

교인총회의장	홍사성
운영위원장	표승범
예배팀장	-
사회선교팀장	노희창
교육팀장	-
생활팀장	김현숙
가족팀장	안용희
재정팀장	방태홍
나눔대표	박상현
청년회장	한의진
장로회	김대준 김동훈 송 건 정모세
교육전도사	김 덕

1. 한반도의 평화, 경제정의,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함께여는교회입니다.

2. 12월 11일 오후 3시부터 2023년 신앙생활을 위한 사업총회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카페바인에서 있습니다. 장로회, 운영위원회, 교인총회 의장단을 비롯한 많은 교우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표승범)

3. 12월 18일 예배 후, 2023년을 신앙생활을 위한 교인총회(사업총회)가 카페바인에서 있습니다. (홍사성)

4. 12월 24일 저녁에 성탄 연말 예배가 카페바인에서 있습니다. (김대준)

5. 12월 25일에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대신 합니다. (김대준)

6. 12월의 영상은 KBS 다큐멘터리 '부국의 조건' (유튜브)입니다. (김동훈)

7. 490번째 촛불기도회는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기도회'로 12월 8일(목) 저녁 7시 이태원동 119-3 (이태원 해밀튼호텔 옆 골목)에서 열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연대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8. 함께여는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가족팀에게 말씀하시면 소정의 안내와 교육을 통해 함께여는교회 식구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용희)

9. 예배 후, 점심준비: 12월 4일 손주운 가정 / 11일 유정옥 가정 / 18일 안용희 가정 / 24일 성탄 연말 예배 만찬 (김현숙)

함께 여는 이야기

성범죄 목회자 감싸고돈 교단들

교단들은 성범죄 목회자를 제대로 치리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목회자 259명 중 <뉴스앤조이>가 신상을 파악한 목회자는 133명이다. 이 중 교단에 범죄 사실이 알려진 목회자는 69명인데, 징계를 받은 이는 26명(37.7%)에 불과했다. 21명이 면직·제명·해임됐고, 5명이 정직(6개월 1명, 1년 2명, 2년 2명)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43명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교단에도 범죄 사실이 알려졌지만,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이들 중 구속 기소되거나 법정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경우가 30명에 달했지만, 교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오히려 소속 목회자를 감싸고돌았다. 교단은 성범죄 목회자들을 엄중히 징계하고,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책임을 방기하고 성범죄 목회자들을 두둔하는 교단의 행태를 고발한다.

교단이 소속 성범죄 목회자를 징계하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위의 사례는 보기 드문 축에 속한다. 대부분 교단은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징계를 해도 솜방망이 처분에 지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곳도 거의 없다. 이번에 <뉴스앤조이>가 취재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사건들의 구체적 내용은 뉴스앤조이 기사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여는 예배

오전 11시 30분	사 회: 방 태 흥
침 목 의 기 도	다 함 께
신 앙 고 백	다 함 께
주 일 학 교 말 씀	사 회 자
주 일 학 교 말 씀 나 눔	김 덕
찬 양 의 시 간	사 회 자
공 동 기 도	사 회 자
함 께 여 는 말 씀	사 회 자
말 씀 나 눔	표 승 범
환 영 / 알 리 는 말 씀	담 당 자
송 영 과 축 도	다 함 께

예배위원

	12월 11일	12월 18일	12월 24일	1월 1일
예배인도	박상현	홍사성	표승범	예배팀장
대표기도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	노희창
말씀나눔	김 덕	정모세	김동훈	김동훈

함께여는교회 신앙고백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생명과 평화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여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임을 믿으며,
 이웃과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섬김과 사랑의 도를 배우고 실천케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적용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긴 계시임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여는교회 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민6:24~26)